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4952.53	코스닥	970.35
	(+42.60)		(+19.06)
금리 (국고채 3년)	3.109	환율 (원/달러)	1469.50
	(-0.029)		(-1.80)



꿈의 5000 뚫었다... K-증시, 46년 만의 새 역사

4000선 이후 약 두달반 만의 성과
5019.54까지 오르다 4952.53 마감
AI발 반도체·자동차주 상승 영향
미, 유럽 8개국 관세철회도 한 몫

한국 증시가 ‘꿈의 지수’로 불렸던 오천 피(코스피5000) 시대를 열었다. 한국 주식시장 역사가 시작된 지 70년 만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7% 상승한 4952.53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5019.54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선 후 약 2달 반 만에 이룬 성과며, 1980년 코스피 지수 산출 이후 46년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증시가 대한증권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1956년 3월 3일 이후로는 70년 만이다.

이날 하루만 보면 1등 공신은 트럼프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면서 다우존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이날 한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3면> ‘오천피’를 이끈 주역은 인공지능(AI)



코스피가 꿈의 숫자로 여겨지던 ‘오천피’에 도달하며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들이 코스피 5000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한때 5019.54까지 상승했다. /뉴시스

I)발 훈풍에 체력이 강해진 반도체주와 자동차주였다. 코스피가 4000선을 처음 넘어선 작년 10월 27일부터 이날 5000선을 돌파하기까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770조165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512조81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6%를 차지했다. 현대차도 ‘오천피’를 이끈 마차 중 하나다. 현대차는 차세대 로봇 ‘아틀라스 열풍’에 힘입어 올해 78% 상승했다. 국내외의 시장 안팎에서는 12·3 계엄사

태를 극복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줬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큰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성장의 불씨’를 살려냈다.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그림도 그렸다. 증시 활성화 정책도 내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추가 부양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진했

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비과세해주는 ‘국 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국증시가 ‘K프리미엄’을 받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본다.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된 올해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과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하는 구조다. 성장률도 바닥권에서 탈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상향하며 확장재정과 내수 회복이 성장 방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선진국 평균(1.8%)보다 높다.

한국기업의 경쟁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54.3%에 달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현재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도 중장기 ‘코리아 리레이팅’ 변수로 거론된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社 미래 먹거리로

에너지 밀도·경량화·안정성 핵심
국내 배터리 3사에 강점·기회 요인
중국 업체들과 격차 확대 기대감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이은 미래 먹거리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떠오르면서 중국 업체에 밀렸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은 배터리 탑재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가 요구돼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지닌 삼원계(NCM) 배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와 경량화,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동해야 하는 로봇 특성상 상용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2~3배 이상 끌어올린 고에너지 기술이 요구되지만, 현존 기술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능이 가장 우수한 NCM 배터리를 적용하더라도 실사용 기준으로는 3~4시간마다 교체가 필요해 배터리 무게와

사용 시간이 로봇의 동작 안정성과 활용 범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상용화 시점과 원가 부담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적용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같은 기술적 진입 장벽은 고에너지 밀도 기술에 강점을 지닌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NCM 계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겨냥한 기술 개발과 사업 연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6시리즈 등 신규 원통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래 수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 중인 테슬라와 로봇 전용 배터리 사양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도 로봇용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며 지난해 현대차·기아와 전용 배터리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에너지 밀도와 출력, 사용 시간을 동시에 개선한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보스톤다이내믹스와 협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6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보스톤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등이 주목받으면서 로봇이 모빌리티·물류·제조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로봇 시장에 대한 중장기 성장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포천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32억8000만달러(약 4조8500억원)에서 2032년 660억달러(약 97조6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머노이드가 산업과 서비스 영역에 본격 투입될 경우 구동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ESS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면서 로봇 확산 시점을 대비해 기술 축적에 나서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기아 EV 라인업.

기아, 전기차 대중화 총력전

구매·이용·교체 전 주기 혜택 강화
EV3·EV4 차량 0%대 초저금리 할부

기아가 국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고객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나선 가운데 기아는 전기차 구매부터 이용, 교체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부담을 낮춰 전기차 접근성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아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부터 기존 보유 고객까지 전기자동차의 구매·이용·교체 전 주기에 걸쳐 체감 혜택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구매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EV3와 EV4를 대상으로 0%대 초저금리 할부와 잔가보장 유예형 할부를 운영해 초기 비용과 월 납입 부담을 낮췄다. 이를

통해 일부 차종은 월 10만원대 후반 수준으로도 전기차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가격 조정을 통한 상품 경쟁력도 강화했다. 기아는 이날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EV5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 진입 장벽을 낮췄고, EV5 롱레인지와 EV6 모델 가격도 조정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적용하면 일부 모델은 실구매가가 3000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는 올 상반기 중 출시를 앞둔 고성능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도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아는 EV 보유 단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도 병행한다. 기아는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고전압 배터리 부분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지선 같이 치르자”
▲국힘 우재준, 한덕수 중형에 “우리 당당…누구도 체포되지 않아” /사진 뉴시스

▲국힘, 노 신년회견에 “무지하고 안이한 경제 인식” “전체주의적 경제관념”
▲사고 1년 지났는데 “추가확인…여객기 참사 특위서 ‘사조위’ 질타

▲靑 “한국 국적 캄보디아 스캠조직 피의자 73명 강제 송환…전원 체포영장”
▲여야, 이해훈 청문회 23일 개최 합의…野 “추가 자료 제출도 부실, 날날이 검증”